

한국국제전시장 개장식 축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특히 고양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니 더욱 훌륭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시장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 것도 뜻깊은 일입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손학규 지사님,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공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오신 페트라 로트 프랑크푸르트 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정보통신·자동차·조선·철강 산업 같은 제조업만 보면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관광·교육·지적재산권·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87억 달러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법률·전시 산업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한층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전시산업은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신기술 제품의 전시를 통해서 첨단산업 발전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전시·컨벤션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국제전시장이 동북아 최대 전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앞으로 수도권은 동북아의 경제 허브,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북부 지역은 발전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인천국제공항이 전 세계 123개 도시를 연결하면서 동북아 교통과 물류의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중심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착공하는 제2연륙교 건설과 함께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 공항 내 자유무역지역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오는 6월 준공되는 파주 LCD산업단지는 첨단 IT 제품의 세계적인 생산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서북부 지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교통과 물류·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해 갈 것이며, 한국국제전시장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개장행사로 열리는 '서울모터쇼'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크게 성공해서 프랑크푸르트나 디트로이트 모터쇼처럼 세계적인 모터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국제전시장의 개장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